

보도자료

퓨어스토리지코리아, 배성호 신임 지사장 선임

2017 년 2 월 1 일— 올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퓨어스토리지 (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파트너 및 고객 대상 영업을 강화하여 국내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IT 전문가 배성호 지사장을 퓨어스토리지코리아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했다.

배성호 신임 지사장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고객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한 20 년 경력의 스토리지 업계 전문가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 합류 전에는 한국넷애플과 한국후지쯔에서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 통신, 금융 및 공공 영업을 총괄했으며, 채널 전략 및 관계 관리 등 여러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는 그 동안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2015년에는 지사 설립 3 년만에 국내 올플래시 시장점유율 2 위¹를 기록했다. 이는 스토리지 기업 중에서도 유일한 성과이기도 하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는 배성호 지사장의 엔터프라이즈 고객 영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올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퓨어스토리지코리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점유율을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식 출시된 고성능 비정형 워크로드를 위한 [플래시블레이드](#)를 비롯해, 퓨어스토리지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배성호 지사장은 스토리지 업계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퓨어스토리지코리아의 고객 기반을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하고, 파트너 및 고객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퓨어스토리지 아태 및 일본지역 마이클 알프(Michael Alp) 부사장은 “풍부한 경력과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업계 전문가와 함께 한국 시장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 배성호 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지사의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수 인재들을 고용해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을 전파하고 파트너 생태계와 고객 기반을 확장해 향후 한국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클 알프 부사장은 “한국 지사를 잘 이끌어 준 강민우 전임 지사장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퓨어스토리지코리아 배성호 지사장은 “올플래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퓨어스토리지코리아에 합류해 국내 기업들의 IT 인프라 혁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 퓨어스토리지코리아의 지사장으로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고객들이 보다 잘

¹ Korea All-Flash Array and Hybrid Flash Array 2015 Vendor Shares, IDC, 2016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객들의 보다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사업영역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파트너와 고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부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를 변화시킨다. 퓨어스토리지는 두 가지 주력 제품을 제공한다. 플래시어레이//M(FlashArray//M)은 정형 워크로드에 최적화돼 있으며,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는 비정형 데이터에 이상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이다.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 NPS 에서 83.5 점을 받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 업체, 소비자 웹,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부, 의료, 제조, 미디어, 소매 및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의 보다 빠르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M&K PR

오주연 과장 / 심정현 A.E

010-9261-8645 / 010-7376-1123

pure@mnkpr.com